

★ 중앙교회 구역 모임(13-49)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459장 누가 주를 따라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1. 삶 나누기

참된 지도자

지난번에 중국을 여행하다가 제가 만난 지하교회 지도자 중에 예순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만난 분은 그 할머니의 따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 매맞은 것만도 세 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매를 맞고도 밖으로 나오면 또 다시 집집을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격려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이쯤 되자 공산당원들도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다시 할머니를 불러 말하기를, "한번 더 매 맞으면 죽고 말 것이니 웬만하면 이제는 좀 그만하십시오"라고 하자 이에 할머니는 "내 나이 예순이 넘었소이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는 일반이오. 끌려가 죽지요 뭐"라고 눈썹 하나 까딱 않고 대꾸하시고는 또 전도하러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저를 만나고 싶어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 방송을 들어오던 터라 "목사님을 꼭 한번 뵙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서 하도 고마운 나머지 인사라도 한 마디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저를 만났다가는 제게 피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제게 쪽지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공원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 발치서 목사님을 한번 뵙겠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다 말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저쪽에 육십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자전거를 탄 채 제 앞을 지나가시면서 목례를 하십니다. 그 눈에서 눈물이 주루룩 흘러내렸습니다. 이 노파와 같은 지도자가 있음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모두가 지도자가 되기를 (본문 / 민수기 11:24-30, 암송 / 민수기 11:29)

1.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행하신 방법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2. 좋은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3. 지도자는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선한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자이고 이것은 훈련되어야 합니다.

나눔1. 모세가 무슨 일로 민11:14절의 기도를 드렸습니까?(민11:4-15)

나눔2. 하나님의 두 가지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민11:16-18)

나눔3. 성막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진영에 있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민11:26)

나눔4. 민11:29절은 무슨 뜻입니까?

나눔5. 새 해의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3. 은혜나누기

- 1) 2014년 나에게 주어진 사역은 무엇입니까?
- 2) 또 나는 어디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3)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4) 중보기도
 - (1) 나라에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북한에도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 (2) 교회 백주년에 주신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1만성도, 비전센터건립.
 - (3) 주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의탁하는 제자되게 하소서.
 - (4) 전도의 문을 여셔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소서.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신년산상축복성회** / 2014년 1월6~10일 주보참조

2) 찬송 / 찬213(구348) 나의 생명 드리니

3) 헌금

4) 주기도